

## 단독주택지의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위한 아동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 A Survey on Children's Needs for Children's Park Remodeling at Detached Residential Area

최 병 숙\*  
Choi, Byung-Sook

박 선 희\*\*  
Park, Sun-Hee

안 득 수\*\*\*  
Ahn, Deug-Soo

#### Abstract

This survey is to find out children's needs of D children's park to remodel into a new one and their common opinions about the child playground, and to contribute these results to drive alternative plans. This park is very old and located in detached residential area, Wooa-dong, Deokjin-gu, Jeon-city. The survey was performed by a questionnaire, and the questionnaire was based on the relative literature reviews and was redesigned by researchers. Data were collected from 198 children, who had attended elementary school in Wooa-dong. By analyzing those data, findings were as follows: 1) Play experiences of D children's park were very important for children, so they remembered it. Above all, they remembered the perceptions of D children's park through playing on the playground facilities and the communication with their friends at that time. 2) Children would like to play creatively with facilities, but they need the traditional play facilities like a slide and a swing. So, it would be important for D children's park to plan well with the good facilities, and even it was mentioned in the literature reviews. The planning of park should be checked as an adventure playground, which can allow children to play creatively and with variety, however it should be still considered with some traditional playground facilities.

Keywords : Children, Playground, Children's Park, Children's Needs, Detached Residential Area, Playground Remodeling

주 요 어 : 아동, 놀이터, 어린이공원, 아동요구, 단독주택지역, 놀이터 리모델링

## 1. 서 론

### 1. 연구의 배경

과거 하향식 주거환경계획방식에서 사용자인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여 물리적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주민참여방식은 최근 계획수립 및 시행, 정책 결정 등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방식을 도입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공간 개선을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 사업'의 명칭으로 2006년부터 공모 시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아파트 건설이 증가하면서 아파트단지의 경우 주민을 위한 공동시설 및 놀이터의 제공이 새로운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독주택지역은 상대적으로 노후화되고 공원, 놀이터 등의 주민 공동시설 역시도 방치

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단독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공동시설의 생활개선을 이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한 지자체의 사업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여러 주민공동시설 중 생활개선 후 그 이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 즉 학교, 주민자치센터가 가까이 위치하고 노인정도 가까이 배치된 D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2006년 생활공간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D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이용자 의견에 관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D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D어린이공원 요구에 대한 아동의 시각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무엇보다 어린이공원의 주사용자는 아동이므로 포괄적인 주민 전체 보다는 아동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의 주요 계획 개념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sup>1)</sup> 이에 현재 어린이공원에 대한 아동 이용자의 요구 및 의

\*정회원(주지자),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조교수 & 인간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정회원(교신지자),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 인간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정회원,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휴양 및 경관계획연구소 겸임연구원

본 논문은 2008년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1) 성인, 아동을 중심으로 이용자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의 다각적 시각을 반영하여 거쳐 D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진행과정 중 본 연구는 아동의 의견과 시각에 집중하여 정리한 것이다.

건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D어린이공원의 이용 실태, 만족도 및 희망사항에 대해 파악하여, 리모델링 계획 시 고려할 아동 시각의 계획 개념을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 II. 선행연구 고찰

어린이공원 계획에서 아동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기존연구는 크게 계획 이후의 완성된 곳 혹은 기존에 계획된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아동의 행태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와 계획의 단계에서 아동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로 구분되고 있다.

### 1.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과 아동 행태 분석

어린이공원의 조성 이후 아동의 놀이행태에 관한 연구는 실태조사 차원에서 몇몇 연구가 수행되었다. 임원현(2005)은 아동에게 적합하고 아동이 원하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ㅎ’ 어린이공원에서 아동 놀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공원 이용에서 아동의 이용행태는 청장년층 및 노년층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남아와 여아의 경우도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동은 37.9%가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찾고 있으며, 실제 아동의 74.2%가 유희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회 방문에서 15분 정도 체류하며 1개의 놀이시설을 짧게 이곳저곳으로 많이 옮겨 다니며 노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원현은 어린이공원에서는 무엇보다 아동에게 놀이시설이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짧은 시간동안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면서 아동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남아와 여아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김철홍과 최형석(2002)은 수원시의 10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이용자 200명으로 부터 이용실태 및 만족도 설문조사하여 어린이공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공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시설 및 어린이가 운동 후 씻을 수 있는 화장실 및 세면대의 설치, 그리고 유아를 동반한 주부의 유아관찰 및 휴식공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안전상 공원의 위치는 집 주변과 가깝고 도로를 건너지 않고 접근할 수 있거나 입지 유치거리가 250 m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오찬주(1988)는 송파구 가락동 어린이공원을 이용해 본 초등학교 학부모 19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10-12세의 남자 어린이들은 야구나 축구경기를 즐기고 주로 집밖에서 노는 장소로 어린이공원을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 어린이공원에서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문제를 제시하였다. 놀이터 시설은 정글짐, 미끄럼틀, 철봉, 시이소 등의 형식화된 시설물로 제한되고 있으며, 공원에는

놀이재료의 구비가 전무한 상태였고, 형식적인 몇 그루의 수목식재, 화장실 및 음수대 미설치, 잔디밭 없음 및 유지관리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상욱과 김운삼(2004) 역시도 전주시의 80개 놀이터에 대한 아동의 안전환경 실태와 놀이터 주변 및 시설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이 의심가며, 놀이터의 놀이와 휴식생활공간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놀이시설은 정기적인 관리 소홀로 녹슬거나 파손된 채 대부분 방치되어 있고, 바닥은 모래가 아닌 흙으로 되어 있어 넘어지면 다칠 위험을 갖고 있었다. 놀이터 주변은 도로, 주차장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거나 자전거를 타기 부적합한 환경임을 제시하였다. 이환기(2001)는 8개의 대구시 어린이공원 이용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공원이름의 홍보, 소음의 문제 및 시설물 설치 문제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시설물로는 화장실, 음수대, 휴지통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 수목 및 벤치 등에 대한 불만, 야간조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와 보수, 그리고 놀이터 모래의 청결유지를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서주영과 최현상(1996)은 어린이공원 만족도와 물리적 환경변수 및 이용행태 관계를 규명하여 공원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놀이시설의 다양성 요인을 입증하였다.

그 외 ‘D’시의 어린이 놀이터를 평가한 연구(최목화, 최병숙, 2003)에서도 놀이터의 시설 설비가 전통적인 유형으로써 단조롭고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놀이에 국한되어 아동의 발달을 유도할 수 있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신체발달과 더불어 사회정서,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대한 이용행태를 조사 분석한 연구는 놀이시설물이 아동의 발달 및 다양한 놀이활동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 화장실, 세면대, 휴지통의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못함으로써 충분한 놀이와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 2. 놀이공간 계획 설계 단계의 아동 요구 분석

어린이공원의 계획 설계 단계에서 아동의 요구를 분석한 거의 연구는 없었고, ‘A’유치원 놀이터를 대상으로 아동의 요구를 분석한 최목화, 최병숙(2003)의 연구이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김도경(1996)은 와우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어린이공원 현대화계획’의 기본계획 개념을 설정한 설계논문으로 거의 유일하였다.

최목화, 최병숙(2003)에 따르면 아동들은 기존 놀이시설의 그네, 미끄럼틀, 시이소, 철봉의 놀이기구를 여전히 요구하였고, 자연요소, 축구장도 요구하였다. 또 정형화된 놀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

는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놀이시설 미로, 터널, 동굴과 같은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요구를 관리자 입장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있었다.

한편 김도경(1996)은 아동요구 분석은 없었지만, 설계단계의 논문을 제시하였다. 어린이공원을 ‘가족공원 속의 지역문화’ 개념으로 접근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마포나루와 황포 뚝대로 설정하여 공원의 용벽과 배 놀이시설물에 표현하였다. 이는 어린이공원이 단순히 놀이터의 개념을 넘어 마을 공동의 놀이마당으로 놀이 주민행사 등을 복합적 기능을 수용해야 함을 강조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계획 설계단계의 아동요구는 관리 및 지역문화와 랜드마크 형성차원에서 성인 입장에서 대신 검토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었고, 공간 배치 및 놀이시설물 계획단계에서는 아동의 요구가 적극 반영 제시되고 있었다.

### III. 연구 방법

#### 1. 설문조사도구 작성

선행연구의 문헌자료(오찬주, 1988; 김도경, 1996; 박승범, 김승환, 남정철, 강영조, 이기철, 감석규, 1999; 임원현, 2005; 김철홍, 최형석, 2002) 및 공원 관련사항(도영준, 1997; 김도경, 박혜진, 2001) 등을 참조하여 1차 설문을 작성하고, 주거학, 아동학, 조경학의 전문가 3인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완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조사도구의 내용

개인 및 놀이사항	학년, 성별, 가족, 바깥놀이 선호
어린이공원 이용실태	동신어린이공원 이용 여부, 이용/비이용 이유, 이용 빈도, 이용 시간대, 집과의 거리, 동반자, 놀이기구이용
어린이공원 만족 및 희망사항	공원 사용 후 기분, 이용 후 만족도(크기, 유지관리, 안전성, 놀이 및 공원 시설물, 조경, 바닥처리, 울타리), 불편 개선 및 희망사항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예비조사는 2007년 4월 7일-4월 8일(2일간) 실시하였다. 1차 작성된 설문지로 D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질문 내용에서 무리가 없음을 판단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4월 11일-4월 13일(3일간), D 어린이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를 한 곳 선정하여 협조를 얻은 후, 학교측으로부터 학년별 1개 반을 추천 받아 실시하였다. 훈련된 대학생이 선정된 학급에 들어가서 설문조사관련 사항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응답자가 직접 기재한 후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과정에서 1, 2학년의 경우, 설문지에 사용된 용어(예: 놀이기구, 시설물, 정자, 파고라)를 질문 하였고 조사원이 이를 설명해 주어 무리없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만족도 조

사의 리커트척도에 대한 응답도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8부를 배포하여 100% 회수하였고,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와 퍼센트를 분석하였다.

#### 3. 조사대상 어린이공원 및 응답 아동의 일반사항

D어린이공원은 1997년 우아동 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곳으로, 2004년 복합놀이시설물 설치의 개조가 한번 이루어졌다. 공원의 면적은 1,000 m<sup>2</sup>이며, 물리적 현황으로는 어린이공원이 노인정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 리모델링된 공원의 놀이시설은 사진 1과 같으며, 복합놀이, 미끄럼틀, 시소의 놀이시설물은 낡고 녹슬거나 부서져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느티나무 밑에는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소파가 벤치 주변에 방치되어 관리가 허술한 상태에 있었고, 바닥 역시 블록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였다. 파고라의 벤치는 바닥이 심하게 경사져 앉을 수 없는 상태였고, 복합놀이시설이 있는 중앙부의 모래밭은 모래가 거의 없는 땅과 같았다. 그러나 이 공원에는 느티나무 13그루가 공원 담장의 경계부에 식재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녹음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사진 1. D어린이공원 모습(2007년 4월)

조사 아동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학년별로 31명-35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별로 1개 학급을 선정 조사하였고, 한 학급의 학생수가 거의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낸 결과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52.0%)이 여학생(48.0%) 보다 응답자가 많았으며, 이는 초등학교에서 남아의 비율이 여아에 비해 높은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다. 아동의 가족은 주로 3인-4인 가족(58.5%)이 많았고, 다음으로 5-6인 가족(33.3%)이 많았다.

표 2. 응답 아동의 일반사항

구분	내용	빈도	%
학 년 (N=198)	1학년	33	16.7
	2학년	33	16.7
	3학년	31	15.7
	4학년	32	16.2
	5학년	34	17.2
	6학년	35	17.7
성 별 (N=196)	남	102	52.0
	녀	94	48.0
가족수 (N=195)	2명 이하	3	1.5
	3-4명	114	58.5
	5-6명	65	33.3
	7-8명	11	5.6
	9명 이상	2	1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아동 개인의 바깥 놀이성향

아동들에게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지 파악한 결과<표 3>, 아동들은 바깥놀이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좋아함’ 47.5%, ‘약간 좋아함’ 29.3%로 응답 아동의 약 76.8%가 바깥놀이를 좋아하였고, 바깥놀이를 싫어한다고 응답한 아동은 4.5%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하루 중 바깥놀이를 하는 시간이 2시간미만이라는 보고로 볼 때, 바깥놀이는 그 시간적 비중은 적지만 아동이 좋아하는 놀이행태임을 알 수 있다.

표 3. 응답 아동의 바깥놀이

바깥놀이 성향	매우 좋아함	약간 좋아함	보통	약간 싫어함	매우 싫어함	계
빈도	94	58	37	6	3	198
%	47.5	29.3	18.7	3.0	1.5	100.0

##### 2. D어린이공원 이용 행태

###### 1) D어린이공원 인식

응답 아동의 48.7%는 D어린이공원을 ‘모른다’고 하였다<표 2>. ‘아주 잘 알고 있다’는 34.9%, ‘잘은 모르지만 알고는 있다’가 16.4%로 D어린이공원을 알고 있는 아동이 51.3%로 나타났다. 이는 D어린이공원을 알고 있는 아동과 모르는 아동이 약 1/2 정도로 이곳 가까이에 위치한 초등학교 응답 아동의 상당수는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어린이공원을 모르고 있었다.

어린이공원을 알고 있다는 아동에게 그 이유를 파악한 결과<표 4>, 주로 ‘가서 놀아봐서(67.0%)’ ‘본 적이 있어서(17.6%)’ ‘들어서(55.4%)’로 나타났다. 아동들은 공원에서 놀아본 경험에 따라 이곳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에 대한 것이 단순히 학교, 집을 오가며 본 것과 친구들로부터 들은 것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아동들은 실제 놀이경험을 통해 D어린이공원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응답 아동의 공원 인식

인식	내용	빈도	%
동신 어린이공원 앞(N=189)	아주 잘 알고 있다	66	34.9
	잘은 모르지만 공원은 알고 있다	31	16.4
	모른다	92	48.7
공원을 알고 있는 이유 (N=91)	가서 놀아봐서	61	67.0
	집, 학교가는 길에 본 적이 있어서	16	17.6
	가거나 보지는 못했지만 친구들에게 들어서	5	5.5
	기타	9	9.9
공원을 모르고 있는 이유 (N=87)	가서 놀아본 적이 없어서	23	26.4
	본 적이 없어서	16	18.4
	들은 적이 없어서	34	39.1
	기타	14	16.1

한편 아동들이 D어린이공원을 모르는 이유로는 주로 이곳에 대해 ‘들은 적이 없어서(39.1%)’ ‘가서 놀아본 적이 없어서(26.4%)’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는 알고 있는 이유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고, 놀아본 경험보다 들은 적이 없어 모른다는 이유가 더 높았다. 조사결과 아동이 공원에 대해 알거나 혹은 모르고 있다는 인식은 아동이 공원에 와서 놀이를 경험하는 것 뿐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공원에 대한 정보를 듣고도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2) D어린이공원의 아동 이용 실태

###### (1) 이용여부 및 시간

아동들에게 평소 D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표 5>, 34.2%의 아동은 공원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5.8%의 아동은 D어린이공원에 가서 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 D어린이공원은 아동들에게 놀이공간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낮았다.

표 5. D어린이공원 놀이여부 및 놀지 않는 이유

구 분	내용	빈도	%
놀이여부 (N=190)	D어린이공원에서 논다	65	34.2
	D어린이공원에서 놀지 않는다	125	65.8
공원에서 놀지 않는 이유 (N=116)	다른 곳에서 놀기 때문에	27	23.3
	원래 밖에 나가 놀지 않아서	6	5.2
	동신 어린이공원이 재미없어서	6	5.2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7	6.0
	밖에 나가 놀 시간이 없어서	34	29.3
	기타	36	31.0

왜 아동들이 D어린이공원에서 놀지 않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면, ‘밖에 나가 놀이를 할 시간이 없어서(29.3%)’와 ‘다른 곳에서 놀기 때문에(23.3%)’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낮은 응답 비율이지만, ‘공원이 재미없어서(5.2%)’의 지적도 있었다.

아동들은 D어린이공원을 ‘일주일에 1-2번(25.2%)’ 혹은 ‘일주일에 3-4번(15.0%)’, ‘거의 매일(11.2%)’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일주일에 1-2번 이상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51.4%로 나타났다<표 6>. <표 5>에서 공원의 이

표 6. D어린이공원 이용빈도

공원 이용 빈도	거의 매일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1-2번	한달에 1-2번	기 타	계
빈도	12	16	27	20	32	107
%	11.2	15.0	25.2	18.7	29.9	100.0

용여부를 파악한 결과에서 공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인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에 1-2번 이상 이용하는 빈도로 파악한 결과가 높았다.

하루 중 시간 및 요일과 계절에 따라 D어린이공원의 이용을 조사한 결과<표 6>, 아동들은 하루 중 ‘아무 때나(50.0%)’ ‘오후 3-5시 사이에(26.9%)’에 주로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에는 ‘요일에 상관없이(30.1%)’, ‘토요일(28.6%)’, ‘평일(23.2%)’의 순으로 그 이용이 높았다. 계절별로의 이용 역시 ‘계절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50.9%)’로 나타났고, 4계절 중에는 ‘봄(20.0%)’과 ‘여름(16.4%)’의 비율이 높았고, 가을(7.3%)과 겨울(5.5%)의 이용비율은 낮았다.

표 7. 하루/일주일/계절별 이용

구분	내용	빈도	%
하루중 이용 (N=108)	낮 시간에 (12-3시 사이)	15	13.9
	오후에(3-5시 사이)	29	26.9
	저녁에(5-7시 사이)	7	6.5
	밤에(8시 이후)	3	2.8
	시간 있을 때 아무 때나	54	50.0
일주일중 이용 (N=112)	평일	26	23.2
	토요일	32	28.6
	일요일(공휴일)	20	17.9
	요일 상관없이 아무 때나	34	30.1
계절별 이용 (N=110)	봄	22	20.0
	여름	18	16.4
	가을	8	7.3
	겨울	6	5.5
	계절 상관없이 아무 때나	56	50.9

이러한 결과는 앞서 아동이 놀 시간이 없어서 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시간, 요일 및 계절에 상관없이 아동은 자신들에게 놀 시간이 주어지면 공원을 이용하고 놀이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들이 어린이공원에서 1회 노는 시간은 ‘30분 이내(37.4%)’ 혹은 ‘30분-1시간(24.3%)’의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8>. 밖에 나가 놀 시간이 없다는 <표 4>의 결과로 볼 때, 1시간 이상을 노는 경우가 적은 빈도 역시 같은 결과였다.

(2) 거리 인식 및 동반자

아동이 인식하고 있는 D어린이공원과 집과의 거리를 파악한 결과<표 9>, ‘조금 멀다(35.5%)’ ‘보통이다(19.4%)’ ‘매우 가깝다(19.4%)’로 나타났다. 응답아동의 상당수가 집에서 공원까지 거리가 멀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49.2%로

표 8. D어린이공원의 1회 이용시간

공원의 1회 이용 시간	빈도	%
30분 이내	43	37.4
30분-1시간	28	24.3
1시간-1시간 30분	13	11.3
1시간 30분-2시간	10	8.7
3시간-2시간 30분	8	7
3시간 이상	13	11.3
계	115	100

표 9. D어린이공원과 집과 거리 및 동반자

구분	내용	빈도	%
공원과 집 거리 (N=124)	매우 가깝다	24	19.4
	조금 가깝다	15	12.1
	보통이다	24	19.4
	조금 멀다	44	35.5
	매우 멀다	17	13.7
동반자 (N=124)	혼자 나가서 논다	10	8.1
	친구와 함께 나가 논다	64	51.6
	형, 언니, 누나, 동생과 같이 나가서 논다	25	20.2
	부모님과 같이 나가서 논다	3	2.4
	기타	22	17.7

나타났다. 아동은 어린이공원의 거리가 멀다고 인식하여도 이와 관련 없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공원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sup>2)</sup>

아동들은 어린이공원 이용 시 단독으로 나가노는 비율은 8.1%로 낮았고, 친구와 함께(51.6%) 혹은 형제들과 같이(20.2%) 나가노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부모와 나가노는 비율은 2.4%로 낮았으며, 이것은 조사대상이 초등학생이므로 놀이의 독자적인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3) D어린이공원 놀이 행태

아동들은 D어린이공원에 설치된 놀이시설물 즉 놀이기구만 이용하여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 10>에서와 같이 빈 땅의 마당을 이용하여서도 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시설물과 빈 땅의 놀이 비중으로 볼 때, 주로 놀이시설물 이용 경우는 36.7%, 주로 놀이시설물+일부 빈 땅 20.0%, 놀이시설물과 빈 땅을 각각 반반씩 이용 20.0%, 놀이시설물은 조금 이용하고 빈 땅에서 주로 놀이를 하는 경우는 6.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놀이를 할 때 놀이시설물에 해당되는 물리적 지원이 놀이를 이끌어 가는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D어린이공원에 설치된 놀이시설물 중에서 그 이용도를 파악한 결과<표 11>, 미끄럼틀(56.2%), 철봉

2) 아동이 집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거리인식과 D어린이공원 놀이여부와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Person Chi-Square=8.952, P=.062),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깝고 먼 거리와 관계없이 D 어린이공원을 이용하였다.

표 10. D어린이공원 놀이 행태

놀이 행태	빈도	%
주요 놀이기구(시설물)에서만 놀았다	44	36.7
놀이기구(시설물)에서 주로 놀고, 빈 땅(마당)에서도 놀았다	24	20.0
놀이기구(시설물)에서 주로 놀고, 빈 땅(마당)에서 모두 반반씩 놀았다	24	20.0
놀이기구(시설물)에서는 조금 놀고, 주로 빈 땅(마당)에서 놀았다	8	6.7
기타	20	16.7
계	120	100.0

표 11. 놀이시설 종류별 이용도

구분	내용	이용자수	%
놀이 시설물의 종류	복합놀이시설	26/130명	20.0
	그네	42/130명	32.3
	미끄럼틀	73/130명	56.2
	철봉	51/130명	39.2
	시소	26/130명	20.0
	벤치	17/130명	13.1
	정자, 파고라	9/130명	7.0
	기타	17/129명	13.1
놀이행위의 종류	복합놀이기구에서 놀기	20/129명	15.5
	그네타기	51/129명	39.5
	미끄럼타기	54/128명	42.2
	시소놀이	13/128명	10.2
	철봉놀이	36/129명	27.9
	축구	18/129명	14.0
	농구	6/129명	4.7
	숨바꼭질	26/129명	20.2
	이야기	19/129명	14.7
	딱지놀이	10/129명	7.8
	기타(정글짐, 술래잡기, 탈출 등)	27/129명	20.9

(39.2%), 그네(32.3%), 복합놀이시설(20.0%), 시소(20.0%)의 순으로 그 이용이 많았다. 또한 D어린이공원에서 놀이를 할 경우 놀이시설물에 한정되지 않고 아동들이 주로 어떤 놀이를 하는지 행동을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미끄럼타기(42.2%), 그네타기(39.5%), 철봉(27.9%), 기타놀이(정글짐, 술래잡기, 탈출 등)(20.9%), 숨바꼭질(20.2%)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놀이행위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이용 결과와 유사한 것이었으며, 이는 놀이기구에 따라 아동의 놀이행위도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앞서 <표 10>에서 놀이기구의 이용과 물리적 지원의 중요성을 파악한 결과와 동일한 것이었다.

아동들은 <표 12>에서와 같이, ‘집에서만 놀면 심심해서(40.4%)’ 바깥의 어린이공원에 나가노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놀이기구나 시설이 좋아서 나가노는 것은 16.5%로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표 10>과 <표 11>에서와 같이 설치된 놀이시설물을 아동은 주로 이용하지만, 놀이시설이 D어린이공원으로 아동의 놀이행위를 유인하지는

표 12. D어린이공원에 나가 노는 이유

공원에서 노는 이유	빈도	%
집에서만 놀면 심심해서	44	40.4
기분 전환	7	6.4
친구 만나려고	8	7.3
넓은 곳에서 뛰어놀려고	13	11.9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 운동을 하려고	5	4.56
놀이기구, 시설이 좋아서	18	16.5
기타	14	12.8
계	109	100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D 어린이공원의 만족도 및 희망사항

#### 1) 공원 이용 후 전반적 느낌과 만족도

아동들은 D어린이공원 이용 후 느낌을 ‘매우 좋았다’ 47.8%, ‘조금 좋았다’ 24.8%로 좋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조사대상의 7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저 그렇다’ 23.9%였고, 부정적 느낌을 갖는 ‘조금 나빴다’는 3.5%였다. 전체적으로 느낌을 5점에서 1점까지 점수로 파악하면, 평균 4.16점(SD=.96)의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3>.

표 13. 공원 이용 후 전반적 느낌

이용 후 전반적 느낌	빈도	%
매우 좋았다(5점)	54	47.8
조금 좋았다(4점)	28	24.8
그저 그렇다(3점)	27	23.9
조금 나빴다(2점)	4	3.5
매우 나빴다(1점)	-	-
계	113	100.0
비고	M=4.16점	SD=.96

공원의 물리적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조사한 결과<표 14>,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보통의 만족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D어린이공원의 크기(3.7점), 복잡함/혼잡함(3.9점), 놀이시설물(3.4점), 운동시설물(3.3점), 벤치 및 의자(3.2점), 화단, 녹지, 나무(3.1점)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지관리 및 청소상태(2.6점), 파고라 및 정자(2.5점), 화장실(2.3점), 바닥처리(2.9점), 울타리(2.8점)로 보통 이하의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들은 공원에서 놀이를 통해 이용하고 나서 기분은 좋게 평가되었지만, 세부적인 공원의 물리적 요소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은 물리적 환경요소에 대한 지원 검토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였다.

#### 2) 어린이공원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요구

D어린이공원에서 아동이 불편하여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면<표 15>, ‘재미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는 놀이시설물의 지원이 언제나 놀이에 이용됨으로써 그 중요성을 나타낸 결과<표 10, 11>와 선

표 14. D어린이공원 물리적 요소의 아동 만족도

항목	매우 만족 (5점)	조금 만족 (4점)	보통 (3점)	조금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 (1점)	계	평균 (SD)
공원의 크기나 넓이	47 (38.8)	25 (20.7)	20 (16.5)	25 (20.7)	4 (3.3)	121 (100.0)	3.7 (1.3)
공원 유지 관리 및 청소상태	8 (6.8)	26 (22)	32 (27.1)	18 (15.3)	34 (28.8)	118 (100.0)	2.6 (1.3)
공원의 안전성/ 다칠 위험 없음	39 (32.2)	14 (11.6)	23 (19)	8 (6.6)	37 (30.6)	121 (100.0)	3.1 (1.7)
공원의 복잡함/ 혼잡함	42 (34.7)	41 (33.9)	31 (25.6)	3 (2.5)	4 (3.3)	121 (100.0)	3.9 (1.0)
공원의 놀이 기구 및 놀이시설물	42 (35.3)	23 (19.3)	18 (15.1)	7(5.9)	29 (24.4)	119 (100.0)	3.4 (1.6)
공원의 운동 시설물	40 (33.9)	23 (19.5)	16 (13.6)	7 (5.9)	32 (27.1)	118 (100.0)	3.3 (1.6)
공원의 벤치 및 의자	31 (24.8)	19 (15.2)	28 (22.4)	37 (29.6)	10 (8.0)	125 (100.0)	3.2 (1.3)
공원의 정자 혹은 파고라	15 (12.3)	19 (15.6)	27 (22.1)	15 (12.3)	46 (37.7)	122 (100.0)	2.5 (1.4)
공원의 화장실	12 (9.3)	18 (14.6)	20 (15.5)	28 (21.7)	51 (39.5)	129 (100.0)	2.3 (1.4)
공원의 화단, 녹지, 나무	37 (30.1)	18 (14.6)	24 (19.5)	8 (6.5)	36 (29.3)	123 (100.0)	3.1 (1.2)
공원의 바닥 처리	24 (20.0)	18 (15.0)	30 (25.0)	12 (10.0)	36 (30.0)	120 (100.0)	2.9 (1.5)
공원의 울타리 (담장)	26 (21.0)	25 (20.2)	20 (16.1)	9 (7.3)	4(35.5)	124 (100.0)	2.8 (1.6)
총만족도	-	-	-	-	-	-	3.0 (1.1)

표 15. D어린이공원에 대한 아동의 불편 및 개선요구

불편 및 개선요구	1순위 빈도(%)	2순위 빈도(%)	3순위 빈도(%)
재미있는 놀이시설	44(30.8)	32(22.4)	7( 5.0)
낙서판	12( 8.4)	13( 9.1)	11( 7.8)
정자, 파고라	3( 2.1)	3( 2.1)	4( 2.8)
나무	4( 2.8)	7( 4.9)	4( 2.8)
넓은 마당	6( 4.2)	5( 3.5)	13( 9.2)
흙이나 모래 없는 바닥	12( 8.4)	6( 4.2)	7( 5.0)
롤러스케이프 장	17(11.9)	13( 9.1)	14( 9.9)
마실 물(음수대)	6( 4.2)	9( 6.3)	21(14.9)
씻는 물(세면대)	-	2( 1.4)	6( 4.3)
화장실	14( 9.8)	21(14.7)	15(10.6)
비를 피하여 놀 수 있는 곳	16(11.2)	25(17.5)	24(17.0)
쓰레기통	6( 4.2)	7( 4.9)	8( 5.7)
휴게의자	3( 2.1)	-	7( 5.0)
계	143(100.0)	143(100.0)	141(100.0)

행연구결과(이상욱, 임운삼, 2004; 김철홍, 최형석, 2002; 오찬주, 1988)를 같이 검토할 때 리모델링 계획 시 신중히 고려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롤러스케이프장’, ‘화장실’, ‘비를 피하여 놀 수 있는 곳’, ‘마실 물(음수대)’에 대한 요구도 높았고, 화장실과 마실 물의 요구는 선행연구(최목화, 최병숙, 2003; 김철홍, 최형석, 2002;)와도 일치한 결과였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놀 수 있는 시설의

지원, 단단한 바닥공간 제공으로 롤러스케이프와 같은 바퀴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즉, 아동들은 놀이시설물외의 부가적인 물리적 요소들을 제시하였고, 이 역시 계획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4) 아동이 하고 싶은 놀이 및 시설물

D어린이공원에서 아동이 하고 싶은 놀이를 파악한 결과, 특정 시설이 없어도 놀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유놀이에 대한 요구(38.9%)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형화된 놀이(14.2%), 바퀴놀이(12.3%)의 요구가 높았다<표 16>. 정형화된 놀이기구에 대한 요구는 아동들이 새로운 놀이 시설의 경험이 없고, 그네, 시소, 미끄럼틀과 같은 전통적인 놀이터 시설물만 경험하고 이에 대한 고정 생각으로 이와 같은 요구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적으로 원하는 놀이시설물도 조사한 결과<표 17>, 아동들은 정형화놀이시설(31.6%)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바퀴놀이시설(12.9%), 방방놀이시설(12.9%)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시설물의 요구는 하고 싶은 놀이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놀이시설물은 정형화된 시설물이 병행되면서도 새로운 자유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물을 아동이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유놀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모험놀이시설의 요구가 <표 17>에서 12.3%로 제시되고 있음을 볼 때, 다양한 모험놀이시설 및 자유놀이의 지원이 가능한 새로운 놀이시설물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표 16. 아동이 D어린이공원에서 하고 싶은 놀이

구분	놀이 종류	응답자수	%
정형화놀이	그네, 시소, 미끄럼틀, 정글짐, 철봉놀이	23/162명	14.2
자유놀이	얼음뿔, 게임, 경찰, 탈출, 술래잡기, 달리기, 노래자랑, 말타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63/162명	38.9
바퀴놀이	자전거, 롤러스케이프, 범퍼카	20/162명	12.3
운동놀이	축구, 농구, 배드민턴	14/162명	8.6
방방놀이	방방, 바이킹	16/162명	9.9
흙 놀이	땅따먹기, 소꿉놀이	5/162명	3.1
기타놀이	공기, 딱지, 이야기, 특별히 없음	21/162명	13.0

표 17. 아동이 D어린이공원에 설치를 원하는 시설물

구분	놀이지원 시설물	응답자수	%
마당 시설	축구 등	4/171명	2.3
게임방시설	PC방, 노래방, 영화관, 귀신집	9/171명	5.3
놀이공원시설	롤러코스터, 바이킹, 청룡열차, 하늘나는 비행기	15/171명	8.8
바퀴놀이시설	롤러스케이프장, 자전거대여점, 범퍼카	22/171명	12.9
방방 놀이시설	점프, 트램플린	22/171명	12.9
정형화놀이시설	그네, 미끄럼틀, 시소, 뽕뽕이	54/171명	31.6
다양화 모험 놀이시설	철봉, 구름사다리, 오르내리기, 흔들다리, 줄, 거미줄	21/171명	12.3
기타시설	깨끗, 화장실, 나무, 꽃, 의자, 유아-부모 시설	24/171명	14.0

## I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및 리모델링의 계획 방향

이상의 결과를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D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계획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을 대상으로 D어린이공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아동들의 과반수 정도만 이곳을 인식하고 있었고, 공원에서 놀아본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약 1/2로 나타났다. 이곳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공원에 나가 놀 시간이 없어서 혹은 다른 곳에서 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은 요일과 계절에 상관없이 공원에서 놀이를 하는 경우는 하루 약 1시간미만을 노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가 멀어도 이곳에서 놀았고, 심심해서 놀이시설물을 이용한 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들이 D어린이공원을 인식하는 것은 장시간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무료함을 극복할 수 있는 놀이경험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아동의 D어린이공원 인식은 논 기억, 친구들과의 공원에 대한 정보교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아동에게 무엇보다 어린이공원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리모델링 계획 시 제공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아동들은 D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물 이용 및 놀이행위 조사결과 미끄럼틀과 그네의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원하는 바를 파악한 조사결과 아동들은 D어린이공원에 재미있는 놀이시설물이 설치되길 원하였고, 자유놀이를 가장 하고 싶어 했지만 원하는 놀이시설물로는 그네, 미끄럼틀, 시소, 뽕뽕이의 정형화된 놀이시설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놀이경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 아동들은 D어린이공원에서 전통적인 놀이를 여전히 지속하길 바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최근 연구에서 모험놀이터 혹은 창의적인 놀이터를 강조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역행적인 결과이나, 전통적인 놀이시설물이 오랜 역사를 갖고 지속된 점을 보면 이들 시설물의 무시보다는 병행 방법의 새로운 놀이시설물을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아동들은 D어린이공원에서의 놀이를 72.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볼 때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의 접근은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만족도가 낮은 유지관리, 파고라, 정자, 화장실, 바닥, 울타리에 대한 검토 및 음수대 및 화장실, 날씨와 상관없이 놀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요구가 제시되었다. 특히 선형연구에서도 그 필요성이 언급된 바, 어린이공원에의 휴식 및 화장실, 음수시설, 날씨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의 요구가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주요한 아동 요구의 결과를 기초로 아동의 입장에서 D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면, 무엇보다 아동들에게 짧은 시간에 강한 놀이흥미를 유발

할 수 있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핵심적 놀이시설물의 지원, 전통적 놀이시설물의 병행, 그리고 기타 시설의 지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아동의 요구를 설계에 반영하고자 주거학, 아동학, 조경학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논의과정에서 핵심적 놀이시설물은 전주시에 어린이공원을 통해 아동의 놀이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고 아동 요구를 수렴한 어린이공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으로 그 방향 설정에 토대가 되었다. 즉, 자유놀이, 다양한 모험놀이 등을 지원하며, D어린이공원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좁은 공간을 감안하여 다목적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놀이시설물 예를 들면, 그물망을 이용한 시설물의 제작 설치로 리모델링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전통적인 놀이시설의 지속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의 재활용 방법을 설정하였다. 기존 놀이시설은 아동들에게 익숙한 시설이므로, 고학년 아동보다는 저학년 및 유아를 위한 측면에서 랜드마크 놀이시설과는 영역을 분리 계획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휴식, 화장실, 음수시설의 문제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아동뿐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휴식시설은 느티나무 그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데크와 정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시설물은 아동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사용함으로써 어린이공원의 지역공원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화장실과 음수시설은 공간 및 위생 관리의 어려움으로 여러 논의를 거쳐 놀이용 수도시설만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노인정과 동사무소 등의 공공시설이 D어린이공원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바, 이곳의 음수시설과 화장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방향을 설정하였다.

### 2. 결론 및 제한점

결론적으로 D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계획에서는 무엇보다 비정형화된 아동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자유놀이의 창조가 가능한 놀이시설물의 설치를 계획하고 이것이 어린이공원의 랜드마크적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함이 아동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아동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이고 독창적이며, 놀이를 통한 아동발달을 지원하는 물리적 시설물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해 온 전통적인 놀이시설물 역시도 중요한 요구이다. 물리적 시설물과 결합한 놀이의 경험이 결국 아동에게 어린이공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그럼으로써 보다 많은 아동이 긍정적인 지원 환경으로 어린이공원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어린이공원을 모태로 단독 주택지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리모델링 계획과정에서 아동의 요구에 제한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였으므로 그 한계가 있다. 이에 성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요구 그리고 리모델링의 계획, 설

계 및 시공의 전 단계에서 아동 및 성인 주민, 전문가 집단의 의견 조정을 제시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1. 김도경(1996), 어린이공원 현대화계획에 관한 연구: 와우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한국정원학회지, 14(1), 67-77.
2. 김도경, 박혜진(2001), 서울시 어린이공원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디자인연구원논문집, 4, 17-24.
3. 김철홍 · 최형석(2002), 어린이공원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0(2), 111-124.
4. 도영준(1997), 어린이공원의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학술논문집, 18(4), 899-916.
5. 박승범 · 김승환 · 남정철 · 강영조 · 이기철 · 김석규(1999), 도시공원의 이용 후 평가에 기초한 공원의 개발지표 설정, 동아대학교환경문제연구소, 연구보고 22(2), 119-131.
6. 오찬주(1988), 대도시 어린이공원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연구논총, 16, 391-417.
7. 이상욱 · 김운삼(2004), 아동복지관점에서 본 어린이의 놀이터: 전북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8, 119-150.
8. 이성필(2000), 마을 숲-주민 참여형 어린이공원, 숲과 문화, 9(2), 36-38.
9. 이환기(2001), 대도시 어린이공원의 활성화 방안 연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지, 16(1), 63-81.
10. 임원현(2005), 햇님어린이공원의 개선에 따른 놀이형태 변화분석, 경주대학교논문집, 18, 347-372.
11. 최목화 · 최병숙(2004), 사용자 참여디자인에 의한 'A'유치원 놀이터 계획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4), 87-97.
12. 최목화 · 최병숙(2003), 대전시 어린이놀이터 환경의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9(7), 105-115.
13. 허주영 · 최현상(1993), 어린이공원 이용자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서초 · 강남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논문집, 12, 자연과학편, 607-628.

접수일(2008. 10. 23)  
수정일(1차: 2009. 1. 5)  
게재확정일(2009. 1. 8)